

언론 사람

05

2021
VOL.251



04 인터뷰 人+人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06 Newmedia of the World

포털 알고리즘 비판과
감시 프레임워크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당신에게 '인권'이란
누구의 것인가요, '모리타니안'

22 미디어 이슈 진단

언론중재위원회의
잠재적 가능성

Contents

2021 May

04

인터뷰 人+人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06

Newmedia of the World

포털 알고리즘 비판과 감시 프레임워크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차분히 계속 백신을 맞으라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취재보다 음식이 문제

12

돈보기

노동과 휴식

-일장일이 문무지도(一張一弛, 文武之道)

14

단어의 중력

몽매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당신에게 '인권'이란 누구의 것인가요,
'모리타니안'

18

이달의 시

머무르지 않는 바람의 설법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2

미디어 이슈 진단

언론중재위원회의 잠재적 가능성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TV 광고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pluie_r<White dandelion>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1995년 5월, 자신의 이름을 건 아동 기금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올 들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어쩌면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  사람 5월호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의 윤혜미 원장을 만나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또 언론  사람 5월호에서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바라본 영국과 한국 언론보도에 관한 에세이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국제분쟁 전문 프리랜서 PD의 분쟁현장 취재기를 담은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국내 언론 현안에 대한 논평 <미디어 이슈 진단> 등의 새 코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사이로 때 이른 더위가 이따금 찾아와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5월입니다.

언론  사람과 함께 스쳐가는 봄날의 끝자락을 만끽하는 푸르른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현 충북대학교 교수
- 충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

Q 2019년 7월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계기, 주요 활동 사항 등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19년 7월에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주요 아동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던 8개 민·관 기관이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시기별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고, 돌봄과 학대아동 보호 등 각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어 연계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으로 아동 관련 복지 사업들이 통합되어 한 명의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이뤄졌던 아동 대상 서비스의 공공화를 위한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돌봄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학대 예방,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과 입양, 장기실종 아동 찾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동권리 보장에 기초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에 근거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동과 관련한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인물들을 밀착 취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아이 혹은 그 아이와 함께 자란 또 다른 아이들은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그 수많은 기사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돌림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피해 아동에 관심을 보여주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아이가 학대를 당했지만 이후 부모가 상담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고 양육 의지도 강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부모의 신분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죠.

Q 최근 일부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입양부모라는 점이 보도되면서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은 무엇일까요?

A 가장 염려되는 건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양가정이나, 계부모가정 또는 빈곤가정 이렇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부모나 입양부모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 사건에서 극히 적은 비중밖에 불과해요. 그런데 입양부모, 계부모에 의한 학대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아동학대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치부하게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점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또 아동학대 문제가 입양가정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지면 사건과 무관한 입양가정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Q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피해 예방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사이버 공간은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잘못 이용하면 과몰입 문제나 은밀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특정한 단어들을 필터링하거나 연령에 따라 콘텐츠 위험도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활동 등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이 늘면서 노동착취나 학대에 가까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해 제도로 만들고 부모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원에서는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회가 발족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고,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제시된 의견을 정책화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아이들의 이익과 권리보장에 관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와 연계해 아이들의 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인데 리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정책 관련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 어떤 정책과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Q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날(5일), 입양의 날(11일), 가정위탁의 날(22일), 실종아동의 날(25일) 등 아동 관련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 달인데요. 5월을 맞아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아이들이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화합과 포용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로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훈육을 위한 체벌도 학대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민주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아이의 일탈은 나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와 당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5월을 맞아 아이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들이 진정 아동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알고리즘 비판과 감시 프레임워크

네이버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수 차례 비판의 대상이 됐기에 낯설지는 않다. 권력화한 알고리즘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저널리즘 관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알고리즘 출입처’를 뜻하는 ‘Algorithm Beat’¹⁾가 국내 언론계 안에서도 서서히 안착되는 분위기여서 반길 만한 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비판의 접근법이다. 그 방법론이다. 여러 언론사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은 그 목적의 순수성, 저널리즘적 가치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방법론의 측면에서 좀체 진화하지 않고 있다.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해 성급히 추론하는 보도 경향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비판을 위해 동원된 아웃풋 데이터의 양이 조금씩은 늘어난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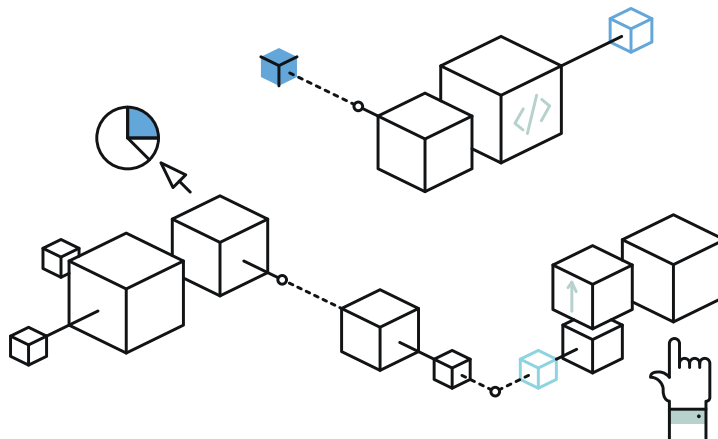
『Automating the News』의 저자 니콜라스 디아코풀러스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자들이 알고리즘 비판을 시도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안한 적이 있다. 입력, 계산, 출력 3요소를 나눠서 접근하라는 조언이다.²⁾ 각 요소별로 알고리즘의 위협이나 한계 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또한 기자들 입장에서 각 요소별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물이 한정돼 있기에 서로 다른 대응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비판할 때 기자들이 수중에 질 수 있는 데이터는 출력값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속성값)나 계산

을 위한 소스 코드는 쉽사리 파악하기 어렵다. 뉴스가 배치된 출력값에 의존해 그것이 사회적 가치와 어떻게 괴리되고 있는지, 어떤 편향이 내재하는지를 추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력과 출력값 모두를 확보한 경우라면 역공학을 통해 알고리즘을 추정할 수라도 있겠지만 내부 폭로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접근은 어렵다.

이 경우 기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유용·유익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애초의 알고리즘 설계 목표나 가치대로 출력값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며 그것의 사회적 유용성을 비판하고, 설명가능성을 꼬집는 탐사보도를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특성별로 출력값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역추론할 수도 있다. 미국의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나 뉴욕타임스의 업샷(The Upshot)³⁾ 등이 알고리즘을 비판할 때 활용하는 접근법이다.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을 비판할 때에는 한층 더 개선된 접근방식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프로퍼블리카, 더마크업(The Markup), 모질라(Mozilla)는 특화된 브라우저나 브라우저 확장도구를 사용했다. 알고리즘이 사용자 개인별로 서로 다른 출력값을 보여줘서다. 예를 들면 모질라는 후회 보고(Regret Report)⁴⁾라는 크롬, 파이어폭스 확장도구를 개발해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출



력값을 추적했다. 더마크업은 시민브라우저라는 맞춤형 브라우저 패널들에게 제공해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수집했다.

이에 비하면 국내 언론사의 알고리즘 비판은 사용자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맞춤형 알고리즘의 특성을 외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출력값만으로 입력값을 과잉 추정하는 행위도 적잖다.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비판의 접근 방식이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뒤범벅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보도의 결과물은 전문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역공학의 전제 조건, 알고리즘 구성요소 등에 대한 기자 사회의 이해 부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풍경들이다.

현재 국내 언론의 구조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기자 공채를 거쳐 편집국이나 보도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긴 어렵다. 게다가 기자 사회의 전공 동질성과 단단한 부족주의는 엔지니어와의 협업마저 가로막고 있다. 하나의 출입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알고리즘은 뉴스룸의 이 같은 강고한 동질성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중이다.

언론이 선호하는 포털 알고리즘 소스코드 공개는 웬만한 압력으로는 쟁취하기 어렵다. 혹여 공개된다 하더라도 언론사 내부에서 코드의 버그를 탐지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예측 오류를 확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런 탐사보도의 경험도 아직은 일천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언론사들은 알고리즘 감시 조건으로 소스 코드 공개에만 집착한다. 비판의 여러 접근 경로가 존재하지만 늘 가장 어렵고도 손쉬운 방법만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살상 수학무기』의 저자 캐시 오닐은 “알고리즘은 코드에 내재된 의견”이라 했다.⁵⁾ 그래서 알고리즘은 중립적일 수 없고 완전무결할 수도 없다. 일상을 지배해가는 알고리즘의 힘이 커질수록 ‘의견’으로서 알고리즘을 향한 감시의 눈은 더욱 정밀해져야 한다. 이에 비례해 저널리스트들의 감시 역량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뉴스룸의 다양성이 근본적 해결책 중의 하나이지만 그에 앞서 알고리즘 비판의 프레임워크부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기술 비판은 기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https://datajournalism.com/read/handbook/two/investigating-data-platforms-and-algorithms/the-algorithms-beat-angles-and-methods-for-investigation>

2) https://cpb-us-w2.wpmucdn.com/express.northeastern.edu/dist/d/53/files/2020/02/CJ_2020_paper_14.pdf

3) <https://www.nytimes.com/section/upshot>

4)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regretsreporter/obpoeflheeknapimliaoefbfaakefn>

5) https://www.ted.com/talks/cathy_o_neil_the_era_of_blind_faith_in_big_data_must_end/transcript



차분히 계속 백신을 맞으라

영국의 날씨에 대해 흔히 하루에 사계절이 다 들어 있다고들 한다. 비가 오는가 하면 문득 짙하니 해가 나고 뜨거운가 하면 갑자기 바람 불고 싸늘해진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다.

하지만 폭우는 드물고 대개 우산 없이도 맞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한다. 더워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다. 온건한 날씨다. 사람은 날씨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이 사는 곳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다. 한번은 같이 한국 쪽 일을 많이 하던, 그래서 한국인들 특성을 안다면 아는 영국인 파트너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영국인들은 변덕스러운(Whimsical) 거겠지”라고 말했더니 하하 웃으며 “하지만 우리는 극단적이지는(Extreme) 않아”라고 받아쳤다.

한국 날씨는 ‘익스트림’하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감정 표현 역시 그렇다고 느껴진다. 거침없이 소리 내어 웃고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울고 화를 내고 고함친다.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 감정 표현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오히려 왜 그래야 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하다면서. 와그르 끓어오르고 차게 식는다. 언론의 논조도 사뭇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은 표현이나 반응이 절제되지 않거나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사람이 결국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세계가 난데없이 팬데믹 상황에 빠져서 꿈쩍 못하고 있는 지 벌써 일 년이 넘었다. 그간 코로나19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뤄진 이슈 중 하나는 백신이라고 할 것이다. 즉, 백신을 어떤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어디서 개발에 성공했으며 그 백신이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나라에서 어떤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으며 결정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의 문제다. (모든 사람이 백신 전문가가 될 기세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관련하여 감염에 의한 집단면역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태의 해결책은 백신뿐인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만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에 책임을 지는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부작용을 과장함으로써 접종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존재하는 부작용을 감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과 우산을 쓰면 되는 비를 가지고 이 비 때문에 마치 홍수가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그동안 한국 언론은 충분한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신의 부작용을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그 태도가 일관적이거나 신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10일경 기저질환 없는 20대 청년이 백신 접종 후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이다. 이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근거로 보도된 것인데, 만일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이 얼마나 의학적

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거나 추후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보도는 이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잇단’, ‘고된’, ‘부작용 큰’, ‘많이’, ‘속속’ 같은 수식어가 등장한다. 백신의 부작용이 적지 않거나 잦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 이런 표현은 같은 주제에 대한 영국 언론의 헤드라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우 드문’, ‘일반적이지 않은’ 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 언론은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성이 매우 낮으니 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혈전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영국의 대중지 ‘선’은 1면 헤드라인 및 비디오 뉴스로 혈전 발생 가능성이 0.000095%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시하며 접종을 받을 것을 권했고, ‘가디언’이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심지어 백신을 맞고 혈전으로 사망한 이의 유가족을 인터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라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데일리 메일’이 1면의 거의 전부를 할애해 적은 “차분히 계속 백신을 맞으라 (Keep Calm and Carry on Jabbing)”는 헤드라인(이미지 참조)은 백신과 관련한 영국 언론의 논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은 4월 12일에 석 달하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던 전면적 봉쇄조치를 해제했다. 팬데믹 이후 세 번째 봉쇄조치였다. 이후 적어도 전면적 봉쇄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매우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영국이 부럽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이 부럽다고 한다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백신을 못 믿겠어서 맞지 말자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면 말이다. 일관적이고 차분한 태도가 아쉽다.



취재보다 음식이 문제

저는 직업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다큐멘터리 피디입니다. 저처럼 여러 나라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취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 때는 한 나라에서 6개월,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취재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잘사는 나라로 취재 가면 뭘 걱정입니까. 호주 취재가면 모든 음식이 아웃백이라 생각하고 일본으로 취재가면 식당이 모두 이자카야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미국이야 맥도널드만 주구장창 가도 음식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3세계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향신료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릅니다. 먹기만 해도 바로 올라오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괴로웠던 음식은 비린내 엄청났던 소말리아 낙타고기 스테이크, 밥에 건

현지인들이 위화감을 느낄까봐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가능하면 혼자 숙소에서 숨어서 먹었습니다.

포도를 넣어 달긴 한데 이상하게 먹을수록 질리는 아프가니스탄 건포도밥, 에티오피아의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게 하던 이상한 노란 밥.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로 취재를 가는 일입니다. 몇 년 전 남수단으로 취재를 갔을 때 일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나라다보니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나마도 많이 비쌉니다. 기껏해야 아주 맛없는 식빵과 약간의 과일, 운 좋으면 만나는 고기, 탄산음료인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 비싸고 대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숙소에서 숨어서 먹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위화감을 느낄까봐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저랑 일하는 스태프들은 음식을 주면 저랑 같이 안 먹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아마도 가족들 나눠주고 싶어서일듯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준비한 빵에 잼까지 발라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모습이 애잔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 음식들이 물리지가 않았습니다. 호텔밖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서 매일 같은 음식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절대 먹지 않았을 조악한 음식이지만 남수단에서는





그거라도 먹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식빵과 잼은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남수단의 맛없던 갈색 식빵이 생각나서입니다.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널렸는데 그까짓 식빵 먹게 생겼냐고 혼자 투덜거리면서 한국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취재 가서 음식 때문에 고생 하는 편은 아닙니다. 비위가 좋으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음식 투정할 처지가 아닌 거죠. 하루 이틀 좀 고생하다 바로 강제 적응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계란과 닭고기는 다 있습니다. 대충 어디거나 닭과 관련된 메뉴를 택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환경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식당이라는 개념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 괴롭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밥 해먹어가며 취재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는 한국에서 해먹을 수 있는 기본양념과 비상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장비 무게 때문에 많이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가볍고 자리 덜 차지하는 걸로 요령껏 챙깁니다.

아프리카 지부티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골로 취재를 갔는데 식당은커녕 제대로 된 가게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의 게스트하우스(말이 게스트하우스이지 방이 두개 밖에 없는 아프리카 시골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각자도생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때 되고 배고프니 코디네이터랑 저랑 나뭇가지 주워 와서 앞마당에 불 피우고 솥단지 걸었습니다. 코디네이터에게 닭과 계란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하려던 메뉴는 '닭백숙'. 이거 그냥 닭을 물에 삶아 소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온 닭을 물에 넣고 팔팔 끓였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닭이 퍼지지 않는 겁니다. 포크로 찔러 보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요. 더운데 코디네이터랑 교대로 불을 지피며 땀 흘려 가며 4시간 가까이 끓였는데 물만 줄어들 뿐 닭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나라의 닭들은 온 동네를 뛰어 다니며 자라나 닭이 너무 근육질이었던 겁니다. 포기하고 닭을 꺼내 먹으니 질기기가 고무줄처럼 짹짹합니다. 그래도 코디네이터랑 먹고 살겠다고 경쟁적으로 닭을 뜯어 먹었습니다. 참 질긴 닭백숙이었습니다.

눈치 보며 일주일에 한 번은 닭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네팔의 어느 산골 마을에 취재 갔을 때도 마을에 식당이 없었습니다. 하루 세끼를 불 피워서 밥을 해먹으며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힌두교 브라만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완전 채식, 그러니까 풀밖에 안 먹는 동네였습니다. 제작진이 풀만 먹고 장기 촬영을 하다가는 모두 영양실조로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세 달을 풀만 먹으려면 취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동의하에 닭을 들여와 우리만 먹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현지인이 닭을 산 채로 들고 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닭을 죽여야 하는 운명입니다. 조연출은 죽어도 못한다고 도망가고 저도 닭 모가지 비틀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용기 있는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작진 모두 '눈치 닭'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닭을 죽이고 우리가 포식한 다음에는 꼭 마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착한 마을 사람들은 그것과 우리를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닭만 먹으면 동네 사람이 아파 쓰러지거나 싸움이 나거나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아도 우리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눈치 보며 일주일에 한 번은 닭을 먹었습니다.

중동을 취재하고 한국에 와서는 절대 양고기를 안 먹습니다. 중동에서 많이 먹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인도 취재하고 한국 와서도 절대 카레 안 먹습니다. 인도에서 각종 카레 많이 먹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소고기 카레는 못 먹었지만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국 밥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 취재 못나간 지 1년이 넘자 현지 음식들이 그립습니다. 요새는 이태원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며 중앙아시아 음식도 사먹고 아랍음식점도 가고 터키 음식도 먹습니다. 터키 빵은 진리입니다. 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해외 취재 나가 현지 음식을 먹고 싶은 새가슴 피디입니다.

노동과 휴식



一張一弛,

일장일이

文武之道

문무지도

한 번 긴장시키고 한 번 풀어 주는 것이 문왕과 무왕의 방법이다.



《예기(禮記)·잡기하(雜記下)》에 나오는 구절로, 휴식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가르침이다. 휴식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시켜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극심한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존과 진급을 위해 일에 매진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심하게는 과로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지혜가 이 글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자공이 사제(蜡祭)를 구경했다. 공자가, “사(賜)야, 즐거웠느냐?”라고 묻자 자공이 대답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친 것 같았으니, 저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했다. “1년 동안 일한 뒤의 사제이고 하루 동안 누리는 은택이니,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긴장시키기만 하고 풀어 주지 않는 것은 문왕과 무왕이 할 수 없었던 것이고 풀어 주기만 하고 긴장시키지 않는 것은 문왕과 무왕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번 긴장시키고 한 번 풀어 주는 것이 문왕과 무왕의 (다스렸던) 방법이었다.”(子貢觀於蜡. 孔子曰, 賜也, 樂乎? 對曰. 一國之人皆若狂, 賜未知其樂也. 子曰. 百日之蜡, 一日之澤, 非爾所知也. 張而不弛, 文武弗能也. 弛而不張, 文武弗爲也. 一張一弛, 文武之道也.)

사제(蜡祭)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한 뒤에 농사와 관련 있는 여러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1년 동안 힘쓴 농부들의 노고를 위로하던 국가적 명절이었다. 연말인 음력 12월 8일에 지냈다.

사(賜) 춘추시대 위(衛)나라 출신의 단목사(端木賜)로 자가 자공(子貢)이다. 공자의 10대 제자[공문십철(孔門十哲)]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연변이 뛰어났다.

백일(百日) 고정된 숫자의 100일이 아니고 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한 해 농사를 마치기까지의 1년 동안을 가리킨다.

문무(文武) 천하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그 뒤를 이어 대업을 완성한 무왕(武王)을 가리킨다.

공자가, 성군(聖君)으로 칭송받는 문왕과 무왕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방법을 비유로 들어 사제에서 사람들이 술에 실컷 취하고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휴식을 필요로 한다. 힘든 일을 수행할 때에는 특히 집중과 이완을 조화롭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장(張)’과 ‘이(弛)’는 활의 모양을 본뜬 ‘궁(弓)’자에서 파생된 글자들이다. ‘장(張)’은 활줄을 조인다는 뜻이다. 활의 시위를 팽팽하게 조여야 화살을 발사하는 힘을 얻는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도 마찬가지이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정신을 다잡고 육체에 힘을 모으는 과정이 조임, 즉 긴장이고 스트레스이다. 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니, 이것이 스트레스의 선기능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갑오경장(甲午更張)’의 ‘경장(更張)’은 ‘줄을 고쳐 매어 팽팽하게 하다’의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고쳐 긴장하게 하는 것, 나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갑오경장은 조선 고종 31년(1894)에 김홍집(金弘集) 등의 개화파가 느슨해진 구질서를 혁신하여 정치 제도를 근대화한 개혁이었다. 이에 대한 평가에는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적 기점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弛)’는 활시위를 풀어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항상 팽팽하게 조여 놓으면 점차 탄력을 잃다가 결국은 탄력이 아예 없어지고 만다. 활시위를 조이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가해지면 탈이 생긴다. 탄력을 잃게 되고 더 심하게는 활의 몸체가 부러지거나 활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치는 현악기의 예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기타나 가야금 등은 평소에는 현을 풀어 놓았다가 연주하기 전에 조인다. 조여야 연주가 가능하다. 연주가 끝나면 다시 현을 풀어 놓는다. 그래야 악기의 몸통이나 현에 무리가 가지 않아 오래,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도 항상 조인 상태, 즉 긴장과 과로의 상태로 있으면 탄력이 소진되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번아웃’의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을 이루는 힘이 되지만 평소에 풀어 주어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상황과 정도를 파악하여 그치고 쉴 줄을 알아야 한다. 노자(老子)가 말하기를,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 있다.〔知止不殆，可以長久。〕”(노자·제43장>)”라고 했다. 멈춤, 즉 휴식의 지혜를 가르친 것이다.

활과 관련된 글자 가운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만한 글자가 ‘인(引)’자이다. 이 글자는 사람이 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으로, 화살을 발사(發射)하는 단계의 최종 동작이다. 활의 의미는 바로 화살의 발사에 있다. ‘발(發)’자에도 역시 활 궁(弓)자가 들어 있다.

노동이나 학습의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를 긴장시켜 힘을 발휘한 뒤에는 반드시 이완시켜야 한다. 심신의 양면에서 조임과 풀어 줌이 조화되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기(禮記)》에서 살폈듯이, 공자는 활의 기능을 통해 긴장과 이완,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깨우쳐 주었다. 즉 우리에게 육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수양하고 노동과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지혜를 가르친 것이다.

몽매

‘한 사람의 건축가가 설계한 듯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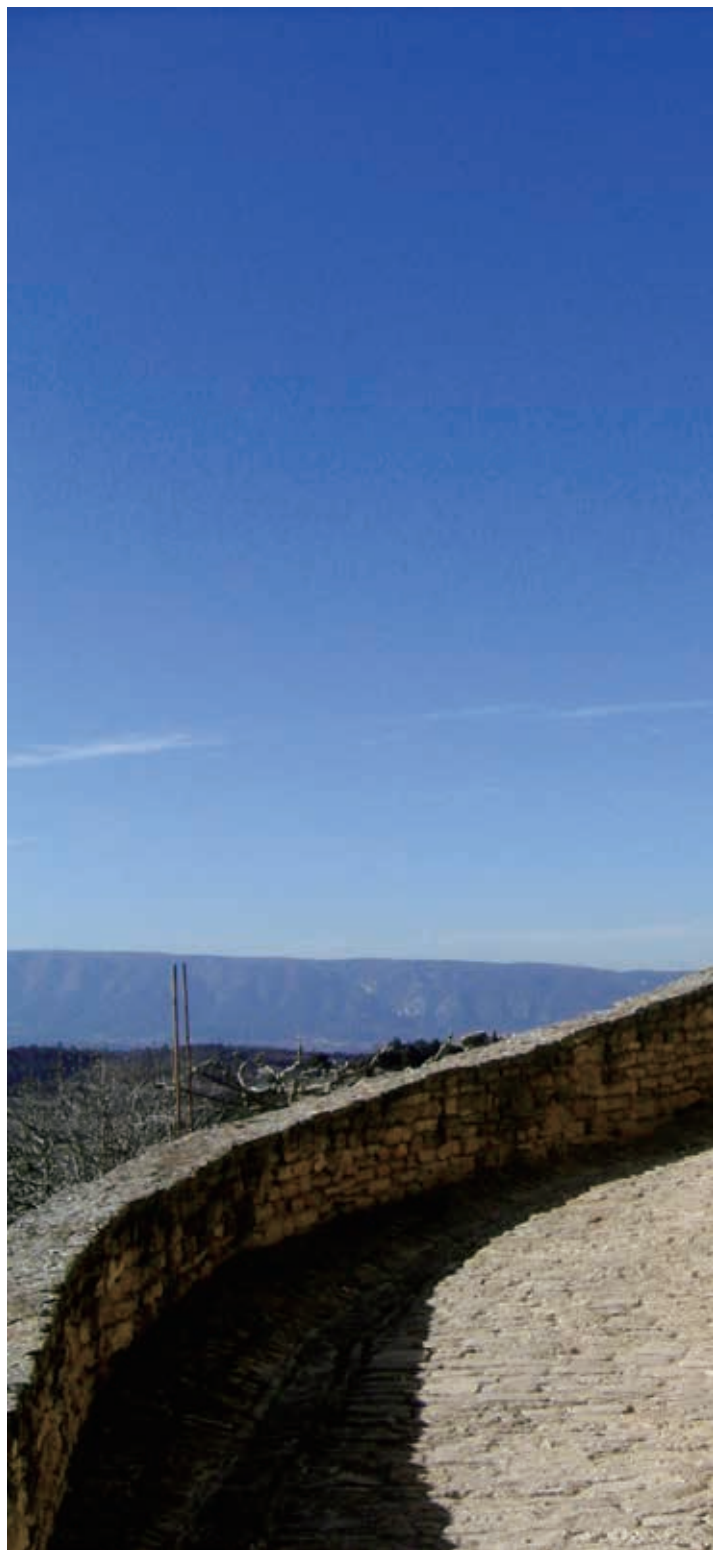
여행 가이드북 론리플래닛은 고르드(Gordes)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가이드북이란 원래 ‘놀라운’,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이라는 수식어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수식어가 주렁주렁 붙은 마을을 이미 여럿 둘러본 터라 너는 별다른 기대를 품지 않았다. 코너를 돌아 산중턱에 자리 잡은 마을을 만났을 때의 감동은,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되었다. 그제야 너는 그렇게 많은 화가들이 프로방스를 사랑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 풍경 앞에서 너도 화가가 되고 싶었으므로.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동부의 옛 지명이지만 지금도 그 이름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고르드는 프로방스에 있는 도시 중 하나로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태양의 아늑한 빛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아마도 도시의 중심지일 작은 광장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호텔과 레스토랑과 가게들이 그 안에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포근한 침구와 파란 창문이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너는 한가롭게 산책을 즐겼다. 평화로운 집들과 우아한 나무들 사이로 오월의 바람이 불어왔다.

예쁜 소품을 파는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에서는 저녁식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이른 저녁이었다. 문 밖에 놓인 메뉴를 한참이나 들여다본 후, 너는 안뜰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아페리티프와 애피타이저는 생략하고, 푸아그라 샐러드와 그릴에 구운 새우요리를 주문했다. ‘지하실의 술병’이라는 이름의 레드와인도 곁들였다.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내뿜는 빛이 하늘에서 너에게로 곧장 쏟아져 내렸다.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수천 수억 개의 감정이 너의 삼장을 관통했다. 너는 외롭고 무기력했다. 너는 화가 나고 슬펐다. 너는 서럽고 설렘했다. 그리고 어쩐지 행복했다. 드디어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마침내 어느 길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무언가를 얻겠다고 발버둥칠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너는 깨달았다.

그날 밤, 포근한 침대 안에서 너는 별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꿈에서 너는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인지 혹은 감정의 죽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죽기 전에,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네가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을 나누어주기로 했다. 네가 떠난 후 ‘유품’이라 불리게 될 것들이





었다. 마지막 인사가 애뜻하긴 했으나 애타진 않았다. 그 사람이 네가 쓰던 향수를 갖겠다 했을 때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곧 따듯해졌다. 너는 서른 살도 마흔 살도 지났으니 너의 연보에 요절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다 잠에서 깼다.

살았나 죽었나 헤아리며 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수천 수억 개였고 네 마음의 갈래도 그러했다. 그 사이에서 단 하나의 진실이 달려와 네게 꽃혔다. 너는 뭔가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남길 만한 것을 남기러 온 것이라는 오래된 진실이었다. 갓 태어난 기분으로, 너는 그 진실을 끌어안았다.

꿈 몽(夢)은 풀 초(艸)와 눈 목(目)과 덮을 먹(一)과 저녁 석(夕)을 모아 만든 글자이다. 어스름한 저녁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다. 잘 매(寐)에는 '자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다, 적적하다'는 뜻도 있다. 몽매(夢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다.

어두울 몽(蒙)은 풀 초(艸)와 덮어쓸 몽(冡)이 만나 만들어졌다. 무언가를 덮어쓰고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미지이다. 어두울 매(昧)에는 '어둡다, 찻다, 탐하다, 무릅쓰다' 등의 의미가 있다. 몽매(蒙昧),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는 뜻이다.

다음날 아침, 별들은 사라진 자리에 금빛 햇살이 가득 들어찼다. 수천 수억 개의 햇살방울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오래된 골목 안에서 찰랑찰랑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눈을 감았을까. 그들의 삶과 죽음이 언덕을 휘감는 바람으로 맴도는 듯했다.

고르드를 떠나 코너를 돌기 전, 너는 다시 한 번 고르드를 바라보았다. 너의 텅 빈 두 손으로 허공을 움켜쥐며 네가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인지 더듬어보았다. 너는 여전히 삶도 죽음도 모르고 있었고, 미래와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이 일생을 흘러 다닐 터였다. 무지몽매, 아는 것이 없이 어리석고 몽매지간, 좀처럼 잊지 못하며 이를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할 것이다. 너는 놀랍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은 인생을 살다 갈 테니 어떤 책도 네 이름 앞에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너도 기도할 것은 있었다.

살결은 떠나도 숨결은 남을 수 있기를. 언젠가 찾아올 너의 죽음이 너의 삶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기를. 몽매, 꿈을 꾸는 듯 흐릿한 이 삶 속에서 몽매, 어리석고 어두운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 괴롭고 헛되어도, 먼 훗날 누군가 너를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떠올릴 수 있기를, 너는 빌고 또 빌었다.

movie



당신에게 ‘인권’이란 누구의 것인가요, ‘모리타니안’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백인 남성 중심의 행사라고 비난받아왔던 아카데미 시상식은 작년, ‘기생충’(봉준호, 2019)에 작품상을 비롯한 4개의 트로피를 안겨주며 그간의 이미지를 씻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올해 후보작 리스트에도 ‘미나리’(정 이삭, 2020),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제이슨 올리너, 2020),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조지 C. 울프, 2020), ‘프 라미싱 영 우먼’(에머랄드 펜넬, 2020) 등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개방적이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모리타니안’(캐빈 맥도널드, 2020)은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슬라히’(타하르 라힘)에 관한 영화로, 연출, 연기, 각본 등 완성도 면에서 다른 후보작들에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문의 후보에도 오르지

Mauritanian



지 못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조디 포스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다른 시상식들에서 여우조연상을 휩쓸다시피 한 '미나리'의 윤여정이 후보에 오르지 않았던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인들에게 9.11 테러의 트라우마가 그만큼 깊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20주기를 맞는 그 날의 일과 후유증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려면 그들에게는 몇 배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슬라히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베스트셀러, '관타나모 다이어리'의 원작자다. '모리타니안'에는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9.11 테러 두 달 후, 납치되다시피 관타나모로 끌려오면서부터 겪었던 일들이 낱낱이 묘사된다. 휘트니 휴스턴에 관한 다큐멘터리('휘트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케빈 맥도널드 감독이 연출을 맡아 이 무거운 실화 기반의 극영화를 밀도 있게 완성시켰다. 누구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 '낸시'(조디 포스터)는 6년째 기소도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있는 슬라히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를 자처한다. 낸시는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심을 두는 대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미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한다. 낸시의 반대편에는 9.11 테러로 친구를 잃은 해병대 군법무관, '스투 코우치'(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있다. 우직한 스투는 대국민적 범죄자인 슬라히에게 사형을 구형하려 하지만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속에서도 죄목을 발견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는다. 재판이 오히려 검찰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사이, 낸시의 동료 변호사, '테리'(셰일린 우들리)는 슬라히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문서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그녀는 약 3천 명의 희생자를 낸 테러범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만다. 여기서 '모리타니안'은 관객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테러범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가? 범죄자는 얼마만큼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가? 그의 죄질은 인권과 전혀 무관한가?

테리와 달리 낸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있지만 슬라히가 자신에게 미리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데는 분개한다. 슬라히는 자신을 변호하겠다고면서도 무죄를 믿지 않는 낸시에게 그 동안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편지로 써 보낸다.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슬라히의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슬라히는 몇 달 동안이나 구타는 물론이고 수면 고문, 물 고문, 협박, 강제 성교까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온갖 폭력적 심문 끝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당시 미정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희생양을 관타나모라는 치외법권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낸시는 편지를 읽고 관타나모까지 먼 길을 달려가 슬라히에게 말한다. "당신을 혼자 두기 싫었어요."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건넨 낸시의 위로는 뜨거운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스투가 양심선언을 할 차례다. 군인으로서 그가 평생을 바치고 싶어했던 국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고. 미국이 자랑하는 평등과 자유의 구호는 슬라히의 누명만큼이나 거짓이었다고.

영화는 엔딩 부분에서 영화의 등장인물이자 실존인물들인 슬라히와 낸시, 테리의 현재를 보여준다.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슬라히는, 놀랍게도, 밝은 모습이다. 죄 없이 고문을 당하고 십 수 년간이나 옥살이를 했는데도 해맑게 팝송을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가 너무 친근해서 더 애뜻하게 느껴진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과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영화 속 슬라히 캐릭터는 실존인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타고난 긍정적 성격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의 젊은 시절을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슬라히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져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머무르지 않는 바람의 설법

바람은
멋쟁이야요

서림(瑞林)

바람은 바람은 감성만 살짝
건드리고 가는 멋쟁이야요
이 강산 저 들녘 세상일 돌아보고
내 작은 꽃봉창을 스쳐가는 기척에
내다보면 버얼씨 바위나무 산너머 가며
소식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며
느낌만 흘리고 불어갑니다

바람은 바람은 머물지 않는
멋쟁이야요
봄에는 분홍바람 여름은 푸른바람
가을엔 붉은바람 겨울엔 하얀바람
꽃봉창 열고 반가워라면
바람은 버얼씨 하늘바람 불어가며
소식은 눈귀로 전하는 게 아니라며
고요한 정서만 놓고 갑니다

- 『편지가 그림다』(사유수, 2020)에서 -

서림(1965년 출가~) 시인은 시승(詩僧)입니다. 시승이란 시를 쓰는 승려를 가리킵니다. 출가한 사람에게 세속적인 장르에 속하는 시를 쓰는 일이란 가외의 것이자 군말과도 같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 시집을 출간한다는 것, 시를 발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본처로 가는 하나의 방편과도 같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종교문화사를 보면 시승이라 불리는 불가의 승려 시인들은 물론 유교, 기독교, 힌두교 등등의 도인이나 지혜인 그리고 사제에 해당되는 출가인들이 써온 시가 조용한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는 출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방편의 한 문화양식에 불과한 것이면서도 그 본질이 본심에 닿아 있는 특별한 문화 예술로서 고급한 정신영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달에 우리는 서림 시인의 작품 <바람은 멋쟁이야요>를 함께 읽어봅니다. 작년에 두 권의 시집을 함께 출간한 서림 시인의 시는 우리 시단의 많은 시들과 조금 다른 경험과 언어적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색다른 시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단은 다양해지고 그 생태계도 건강해집니다.

바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몸이 가벼운 존재입니다. 허공이 그의 처소이고, 그의 발길은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무주(無住)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을 만져보기도, 붙잡아보기도, 그려보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실체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서림 시인은 이런 바람을 그의 시 <바람은 멋쟁이야요>에서 다룹니다. 제언에서 바람은 시인의 감성만 살짝 건드리고 진정 가벼워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심의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갑니다. 시인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아쉬워하며 꽃봉창을 열고 내다보지만 바람은 어느새 저만큼 멀어진 채 다른 길 위를 가고 있습니다. '소식은 말

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한소식 깨우쳐주면서 말입니다.

이런 바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시인은 '바람은 멋쟁이야요'라는 말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2연에 이르러 보다 감동적인 진경(進境)을 펼쳐 보입니다. 바람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새로운 모습을 하고 시인의 꽃봉창가를 스쳐 지나가는데 시인은 그런 바람의 본질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의 본질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은 눈귀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그런 바람의 초탈한 삶과 향기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시인의 마을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일까요? 분명 왔지만 머문 바가 없는 바람으로부터 시인은 살짝 건드려진 감성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바람이 남긴 고요한 정서를 간직하게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이런 바람과 시인의 차원 높은 만남은 읽는 이들의 가슴까지도 뜨겁게 만듭니다. 스치며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바람도 대단하지만, 그런 바람의 소식을 듣고 화답할 줄 아는 시인의 경지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오직 길 위에서 전 생애를 살아가는 바람.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에 무언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을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을 기다리며 계절마다 꽃봉창을 처음인 듯 언제나 열어보고 바람의 길과 선담(禪談)을 나누는 시인. 이런 바람과 시인의 삶은 무게 없는 초탈의 향기를 발하면서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5월입니다. 훈풍(薰風)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5월의 훈풍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속엿말을 청취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훈풍의 속엿말과 삶에 화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삶의 무게를 조금씩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News Vol.251

위원회 뉴스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 창립 40주년 특집호 발간 및 논문 공모

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가 4월 15일 발간됐다. 위원회 창립 40주년 특집으로 기획된 이번호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언론중재제도의 40년간 성과를 돌아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논문 등 3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8월 발간 예정인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의 기획논문 및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기획논문 주제는 '명예훼손과 피해구제'이며 제안서 마감은 5월 3일 자정까지이다. 기획논문 외에 헌법재판소 2021. 2. 25.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도 모집한다. 기타 연구논문 등 최종논문 제출 마감일은 6월 21일이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논문 공모

위원회는 '선거와 언론보도, 해외 각국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제5호) 수록 논문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연구대상 국가에서 석사 혹은 박사 과정 이수 중이거나,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또는 연구주제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이며, 연구제안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은 5월 9일까지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위원회는 5월 2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예정이다.

Focus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개정안의 주요 제안내용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중재위원회 정원 증원(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정정보도문 게재 분량 및 크기 개선(김영호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언론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및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비위험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취소판결 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제공·매개하는 기사 관련 정정·반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검색·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상태다. 또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위원 동정

강소영·한 선 위원,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강소영(서울제7중재부·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한 선(광주중재부·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이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지역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1. 3. 15.부터 3년이다.

고영철 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세미나 참석

고영철 위원(제주중재부·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은 4월 9일 한국지역언론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취지와 목표’ 주제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경희 위원, ‘코로나19 보도 점검 -미디어와 백신, 방역과 방해사이’ 토론회 참석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4월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한 토론회 ‘코로나19 보도 점검 - 미디어와 백신, 방역과 방해사이’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은 “감염병 보도는 피해확산 방지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 전문 데스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정혜 위원, KBS 수신료 인상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임

양정혜 위원(대구중재부·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4월 2일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향후 진행될 국민 속의 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승재 위원, 제3회 한국중재대상 차세대 리더상 수상

최승재 위원(서울제8중재부·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제3회 한국중재대상 차세대 리더상을 수상했다. 한국중재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중재·조정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중재인과 대리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도 최근 발의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 피해구제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위원을 증원하는 방안 등은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지속적인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가 상당하고 실제로 당사자 간 열람차단에 합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 도입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및 중재위원 정원 증원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리터러시 정보 축적과 공유

언론중재위원회의 잠재적 가능성

저널리즘의 가치는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보장된다. 하지만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비록 공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인할 경우 저널리즘 행위가 억압과 통제 수단으로 변질,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등을 통해 언론 통제를 정치권력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은 지금은 자본과 결합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뉴스 공급원과 콘텐츠 유통 경로가 다각화되면서 뉴스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시장 경쟁이 또 다른 언론 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털과 소셜 미디어가 지배적인 뉴스 소비 채널로 부각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 이용자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확인 보도, 왜곡 및 과장 보도, 어뷰징과 필터버블 등이 저널리즘 환경을 혼탁하게 하는 새로운 의제로 등장했다. 법과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규제 중심의 언론 구조나 소비자의 뉴스 선택권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중심의 언론 구조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시키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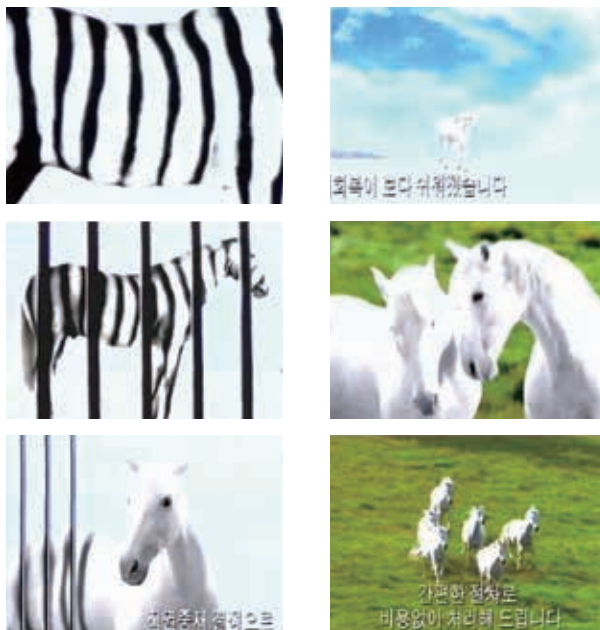
시장과 정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여론 환경 조성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한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을 유지하면서도 여론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향점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보도로부터 비롯되는 갈등 상황에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조정·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핵심 기능 이외에도 부수적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잠재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은 매년 거의 10% 전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해 대비 10.7%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조정사건 중 약 75.1%는 인터넷 미디어 대상 사건이고, 유튜브와 1인 미디어에 대한 조정·중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조정·중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대응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 인터넷 기반 미디어 관련 분쟁 비율이 가장 높고 유튜브와 1인 미디어에 대한 조정·중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기반 언론들의 저널리즘 역할 수행에 따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

하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언론 환경을 법의 심판이나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신생 미디어 플랫폼이 여론 환경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따른 긍정적인 기여도 무시하기 어렵다.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저널리즘 환경에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정보 축적과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 해결과정에서 축적한 세부 사례들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분류, 정리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해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조정·중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은 현재의 저널리즘 가치와 언론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자 뉴스 소비자의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뉴스 저널리즘의 가치와 품질을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의 원천으로 손색이 없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정보의 축적과 공유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축적해놓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보를 국민적 눈높이에서 공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여론 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TV 광고



1991년은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에서 매우 의미가 큰 해입니다. 바로 최초의 TV 광고가 제작·방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과 달리 언론중재위원회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방송광고는 국민들에게 위원회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TV 광고 중 가장 창의적인 광고로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물이 꼽히는데요. 차례로 제작된 ‘병아리’(1994년), ‘금붕어’(1995년), ‘얼룩말’(1996년)편 광고는 동물들이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비춰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제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친숙한 동물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한 이 광고는 1994년과 1997년 대한민국광고대상 공익광고(TV) 부문 장려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미디어라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잘못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소개해 드린 광고의 한 장면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